

예배 및 모임안내

- 새벽기도 월~토 5:55 am
- 주일예배 1부 7:00 am
2부 9:00 am
3부11:00am
- 주일영어예배(EM) 9:30 am
11:00am
- 금요찬양예배 8:00 pm
- 유아·유치부 11:00 am
- 초등부 11:00 am
- 중고등부 (한어·영어) 11:00 am
- 각 선교회모임 매월 첫째주일
- 각 순모임 매월 둘째/넷째주
- 순장모임 매월 셋째주일
- 선교회 기도모임 매주일10:15am
- 나사렛청년 선교회모임 매주일12:15pm

양육 훈련 안내

본교회 훈련은 전도와 양육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대일과 소그룹 형태로 진행합니다. [문의: 교회 사무실]

전도 | 고구마전도, 하나님나라 비전모임,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양육 | 새교우반, 선교회 성경공부, 풍성한 삶의 첫걸음, 풍성한 삶의 기초

파송 및 후원 선교사

파송 | 이광보(아르헨티나)

후원 | 김홍근(헝가리) 윤누가(우즈베키스탄) 윤피터(방글라데시)
이건화(볼리비아) 이능성(나이지리아) 김성일(페루)
이세정(네팔) 서문안(C국) 조종우(T국)
김억수(레소토) 이재석(필리핀)

후원 선교단체

겨자씨선교회 고구마글로벌미션 밀알선교회
크리스찬비전선교회 중부개혁신학교 아시안암환우회
서로돕기센터 몽골교회 미션사랑방교회
아이오와다민족교회 산소망중도실명자선교회 KAPC세계선교회
시카고기독교라디오방송 시카고주빌리통일구국기도회 통일소망선교회
TICI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임 철 성
- 부목사(KM) 김태한 서요셉
(EM) Yun Choi
- 협동목사 김주현 김인태 황주성
- 전 도 사 이영걸 유진경 정다빈 이경애
- 시무장로 *김승식 유진하 이병기 서정일 김대환 이현영
*전철구 소재만 송무성 주대영 심효신 (*휴무)

이 주 함 인 헤브론교회
Hebron Presbyterian Church
511 Schoenbeck Rd, Prospect Hts., IL 60070 (847) 394-8454

성령충만하여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지역복음화와 세계복음화를 실현하는 교회

• 하나님중심 • 말씀중심 • 교회중심 •

2024 표어 안팎의 변혁을 통해 세상을 회복하는 공동체 (엡 2:10)

제2071호 2024년 12월 15일

주일예배 1부 (오전 7:00) / 2부 (오전 9:00)

인도: 김태한 목사 설교: 임철성 목사

참회기도	각 개인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 기 원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새 2)
▲ 성서교독	117번 구주강림 (3)
▲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 송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새 91/통 91)
기 도	1부: 이용범 집사 2부: 김종규 장로
봉헌찬양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새 50, 1절)
봉헌기도	인도자
교회소식	인도자
성가대찬양	그 사랑 때문에 (2부, 헤브론 성가대)
성경봉독	마태복음 1:1~6, 16
설 교	복음으로 가득한 그리스도의 족보
▲ 찬 송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새 290/통 412)
▲ 축 도	설교자

▲표는 일어섭니다

다음주 섬김이

- 대표기도 1부: 이상현 집사 2부, 3부: 우현중 장로
- 안내위원 1부: 교역자
2부, 3부: 박성심 권사, 손현주 권사

주일예배 3부 (오전 11:00)

인도: 김인태 목사 설교: 임철성 목사

▲ 예배로의부름	인도자
▲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 양	찬양팀 [주를 위한 이 곳에 / 오직 예수 뿐이네 내 평생 사는 동안 / 그가 오신 이유]
기 도	김종규 장로
봉헌찬양	나를 받으옵소서
봉헌기도	설교자
교회소식	설교자
성경봉독	마태복음 1:1~6, 16
설 교	복음으로 가득한 그리스도의 족보
▲ 찬 송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새 290/통 412)
▲ 축 도	설교자

▲표는 일어섭니다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찬 양	예찬팀
성경본문	사무엘상 16:1~3
설 교	선지자를 베들레헴으로 보내시다 임철성 목사
합심기도	다같이

새벽기도회 (오전 5:55)

16일(월)	17일(화)	18일(수)	19일(목)	20일(금)	21일(토)
김주현목사	서요셉목사	김인태목사	김태한목사	황주성목사	임철성목사
말라기 1:1-14	말라기 2:1-16	말라기 2:17-3:12	말라기 3:13-4:6	시편 109:1-15	시편 109:16-31
안팎의 변혁을 통해 세상을 회복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환우들과 작은별 가정, 안디옥 어린신들, 흠여져있는 자녀들과 가족을 위해	주파송 선교사와 협력선교사, 선교지, 선교기관, 선교회를 위해	교회 사역자들이 성령충만하여 말은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지역사회와 한인교회, 한국교회 및 미국교회가 견고히 세워지도록	한국학교, 주일예배, 주일학교, 영어예배를 위하여

지난 주일 설교 요약

*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 (미가 5:2-6) | 임철성 목사

선지자 미가는 이스라엘의 통치자를 목자와 평화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스도는 평화의 세상을 가져오시는 분입니다. 미가와 동시대의 선지자 이사야는 “칼을 쳐서 쟁기를,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세상”을 예언했습니다. 평화의 통치자가 가져오는 새로운 세상,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는 먼저 심판을 통해서 평화를 가져옵니다. 자기중심적 삶의 결과인 불의를 의의 왕께서 심판하심으로 불의의 희생자들을 구원하십니다. 동시에 자신의 몸을 찢으셔서 세상의 온갖 막힌 담과 원수된 것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별명이 “평화의 왕(사9:6)” 이십니다. 교회의 신앙고백은 “주는 평화” 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평화를 누릴수 있습니까? 첫째, 하나님과 평화하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죄책, 죄값, 진노, 심판, 두려움 등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런데 평화의 왕을 통해 인간이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둘째, 사람들과 평화하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지방색, 학력, 빈부, 직분의 차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평화의 왕께서 모든 막힌 담을 헐고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십니다. 세째, 세상과 평화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평화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으니, 성탄의 계절에 평화의 종으로 살길 바랍니다.

*기도

주님,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과, 세상을 화평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중보 기도제목

- 교회와 가정을 위하여
 -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되도록
 -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와 가정 되도록
 - 금주의 행사: 금요찬양예배/어워나(금) 한국학교/성경공부(토)
- 환우를 위하여

김정일 김순동 김국자 이용은 이진영 전명산 주연화 류순희 김상희 이근효(이성희) 이호민(이연자) 김복란 김그레이스 송준호 김태영 김화자 정재현 김응태 이준권 이정식 이수지 김은희 윤하울 강한나(강리아) 김정화 정태성 이금례
- 한국과 미국, 선교사님을 위하여
 - 한국교회와 미국교회의 영적 각성과 화합
 - 북한의 동포와 탈북자들을 위해
 - 선교사 및 선교단체를 위하여

교회 행사

- 12월 15일(주일) 연말제직회/신임제직훈련
21일(토) 교육부 Christmas Sparkle
22일(주일) 성탄주일
25일(수) 성탄축하 찬양예배 (11시)
26일(목)-28일(토) 중고등부 겨울수련회
29일(주일) 연말공동의회

교회 소식

1. 연말제직회: 오늘 3부 예배 후

2. 신임제직훈련: 오늘 오후 1시 30분, 105호실

3. Christmas Sparkle

즐거운 크리스마스 모임에 헤브론 교육부 가정들을 초대합니다.

대상: 교육부 가정 일정: 21일 (토), 오후 2시~3:30

장소: 체육관

*모임을 위한 자원봉사자 모집 사인업: QR code, 사무실



4. 성탄축하 찬양예배: 25일(수) 오전 11시

5. 중고등부 겨울수련회: 주제 “The community of Worshipers,” [Psalm 122:1]
일정: 26일(목)–28일(토) 장소: Covenant Harbor Lake Geneva, WI
회비: \$150 (early registration by 12/15) \$175 (after 12/15)

6. 2025 청지기 다이어리

위원장, 팀장 및 임원, 순장, 각 선교회 임원들은 사무실에서 수령

7. 2025 달력 배부: 사무실에서 수령

8. 교우소식

출산-옥진우/유지혜 가정 지난 7일(토) 둘째딸 출산, 옥하늘 (Haneul)

친교-김화자 권사(안디옥) 가정에서 부군 고 김정숙 집사 장례를 은혜중
마침에 감사하여 떡 대접

새가족 환영

- 오늘 처음 예배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